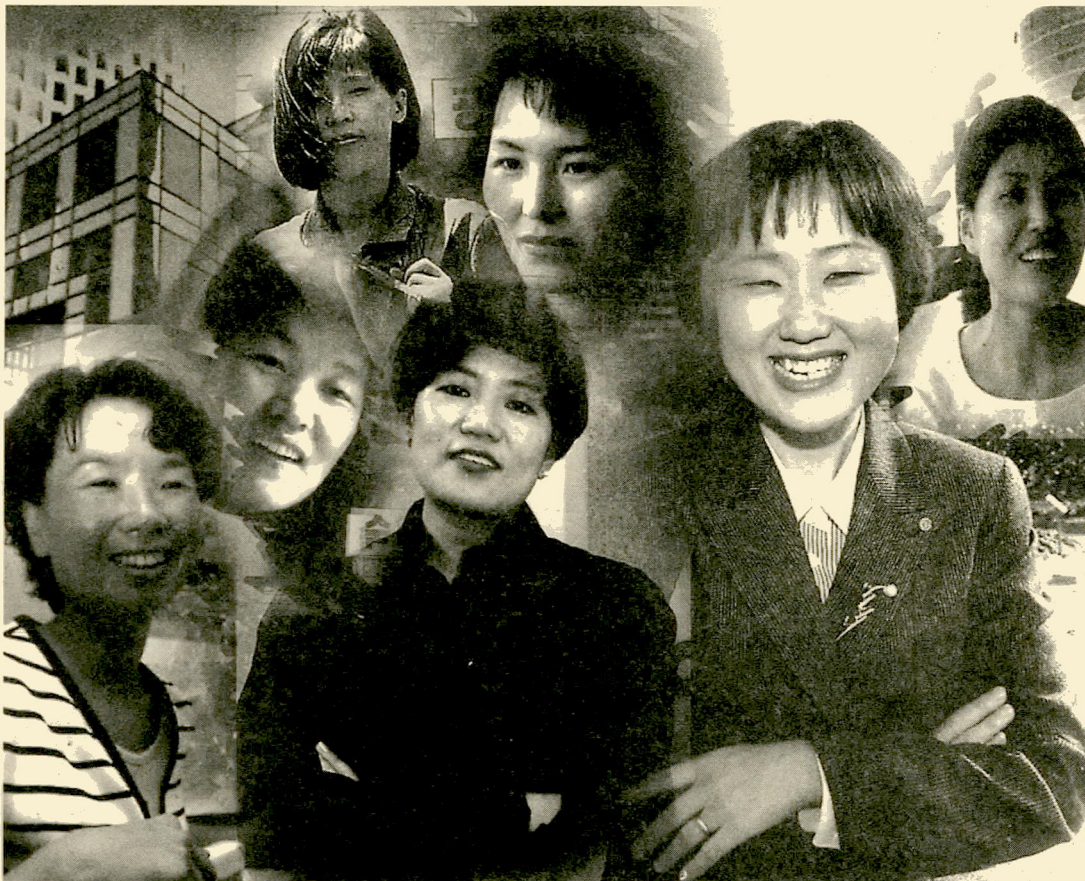


기획시리즈 변혁시대의 주역, 30대 여성을 분석한다 ①

의식화 됐지만
준비 안된 세대

“신세대는 쑥스럽고 구세대는 서운하다”

전통과 새로운 가치 사이 정체성 찾기 고민하는 세대



‘의식화된 그러나 욕심많은’ 세대인 오늘날의 30대는 삶 속에서 부딪치는 개별적인 체험을 사회 속에서 공론화시키기 시작한 첫세대로 평가된다. (30대 담론의 도화선이 된 작가 최영미, 신경숙, 공지영, 공선옥과 전문직, 사무직,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30대 여성들)

흔히 30대를 ‘샌드위치’ 세대라고 한다.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서 성장한 40대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자란 20대의 자유분방한 가치관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30대는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여성운동과 민주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80년대에 학창시절을 보낸 30대 여성들은 10년, 20년 전의 30대와는 현저한 차별성을 보이며 사회의 주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30대 여성의 현주소를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서른, 잔치는 끝났다〉는 시집이 화제를 모았던 적이 있다. 이 책은 작가 최영미의 시적 체험으로서 보다는 ‘30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분석을 이끌어냄으로써 해서 더 오랫동안 공론의 장을 지켰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공지영, 신경숙, 공선옥, 김형경, 김인숙 등 30대 여성작가들의 작품이 연이어 베스트셀러로 등극하자 30대 담론은 뜨거운 화두가 되었다.

경제부흥기 속 높은 교육열 혜택

그러나 여성작가들이 펼친 30대 공론의 장에서 주인공로 떠올랐던 것은 남성이었다. 여성작가들의 체험적 고발로 오늘을 사는 30대 여성의 모습 찾기를 기대했던 여성들은 30대 남성론만이 확연하게 부각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지난해 언론의 일면을 장식했던 무수한 30대론에서 여성은 남성의 생활양식을 이루는 레저, 직장생활, 가족, 부부관계 등의 분야 중 하나로 거론됐을 뿐이다. 2년 여 전부터 엄청난 양의 30대 담론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0대 여성’을 주제로 묶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그 이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30대 여성의 제 모습 찾기’는 더이상 늦출수 없는 사회적 과제다. 여성학자 박혜란 씨의 말대로 ‘의식화되고 욕심많은,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Motivated but Unprepared)’ 이 세대는 조만간 사회의 주역으로 전면에 부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인류학자 조혜정 교수(연세대 사회학과)는 80년 초반 근대화 이후 여성이 전문직으로 진출하는 과정을 연구하면서 여성의 유형을 4가지

세대로 정리한 바 있다.

일제 식민 통치 아래에서 성장한 1세대, 6.25년리 중청년기를 보낸 2세대에 이어 독립 국가에서 정규직 교육과정을 거친 여성이 3세대로 범주화 됐다. 그리고 1960년 전후에 태어난 급격한 경제 성장기에 소년기를 지내고 현재까지 높아진 여성의 대학진학률을 기록한, 여성운동이 본격화된 시대에 대학을 다닌 여성들이 4세대로 분리됐다.

조 교수는 이 마지막 단계의 주인공들은 “전문화 되어가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남녀평등 사상의 대두를 피부로 느끼며 청년기를 보냈다는 점에서 전세대와 크게 구별된다.”고 분석했다.

민중과 함께 가치관 형성

통계청은 94년 우리나라 전체 추계인구를 4천4백45만 3천여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30대 연령에 있는 인구는 전체의 19%로 8백44만6천70명이다. 이중 여성의 인구는 4백14만7천25명으로 49.1%에 이른다.

’94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30대 여성 중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은 23만4천명으로 전체의 6%다. 40대의 대졸 여성수 7만여명의 3배에 이른다. 좀더 영역을 확대해 보자. 같은 자료의 ‘각급 학교 졸업자 수 추이’를 보면 85년도 대학 여

성 졸업자(81년 학년) 수 4만 2천7백71명은 75년의 9천백 17명에 비해 무려 77%나 증가했다. 남성에 대비해도 85년도의 대졸자 남성 1백명 당 여성은 63명으로, 65년의 31명, 77년의 48명에서 크게 증가했다.

85년도를 중심으로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원, 고등학교, 초급대 등 각급 학교의

개 자아를 형성했다.”고 말한다.

오늘날의 30대는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 자기를 잃고 살아온 40대 이후의 세대나 개인적인 명분과 자아실현을 우선시 하는 90년대 학번의 20대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공동체적 가치관을 내심 자랑스러워 하기도 한다. 80년대 학번이 사회에 진출한 이후 남녀

자본주의 성장기서 물질혜택 받은 민주화운동의 주역

고학력으로 의식화, 준비부족으로 결혼·사회생활 혼란 겪어

‘욕심많은 세대’, ‘다양성의 세대’로 평가 돼

여성졸업자 수는 10년 전에 비해 최고 200%까지 증가했다.

이전 세대에 비해 30대는 높은 학력을 통해 정신적으로 의식화된 세대라고 인정받는다. 더군다나 이들의 의식화는 80년대가 갖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개인적인 무장차원을 넘어선 것이다.

무수한 30대 담론을 통해 공론화 됐듯이 그들은 학창시절에 5.18과 6.29라는 굵직한 역사적 사건을 겪었다. 전업주부 민 선희 씨(31, 서대문구 연희동)의 “우리 때에 한 번 안해 본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반문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그들의 학창시절에는 민주화 쟁취라는 대의명분이 무엇보다 앞섰다. 이소희 교수(한양여전 영어과)는 한국의 30대는 “한국사회의 자본주의 성장기에 민중과 함

고용평등법(87년)이 제정되는 등 사회전반에서 ‘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업들이 속속 진행됐다.

그러나 30대 여성은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세대로 분리된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들의 보금자리는 아직 미완성이다.

30대 여성들은 가정과 직장, 육아문제를 해결하지 못한채 어머니세대와 비슷한 딜레마에 빠져있다. 가사분담과 육아의 사회적 책임이 심도있게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 희망적으로 다가 올 뿐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여성의 사회활동 실태 국제비교’ 중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우리나라 30대 여성들이 선진국의 동세대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하고 복잡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93년), 독일(92년), 프랑스(93년) 등에서 20-24세 여성의 경제참여율은 각각 70.1%, 84.7%, 51.8%다. 같은 연령에서 우리나라도 64.7%로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

그러나 25-29세에 이르면 우리나라는 45.6%로 급격히 떨어지는 반면 프랑스는 82.4%, 미국은 74.7%, 독일은 95.1%로 오히려 증가한다.

25-29세에서 급격히 떨어진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이 30대 초반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 30대 후반에 이르면 59.6%로 올라서고 40대 초반에는 20대 초반과 같은 64.2%로 올라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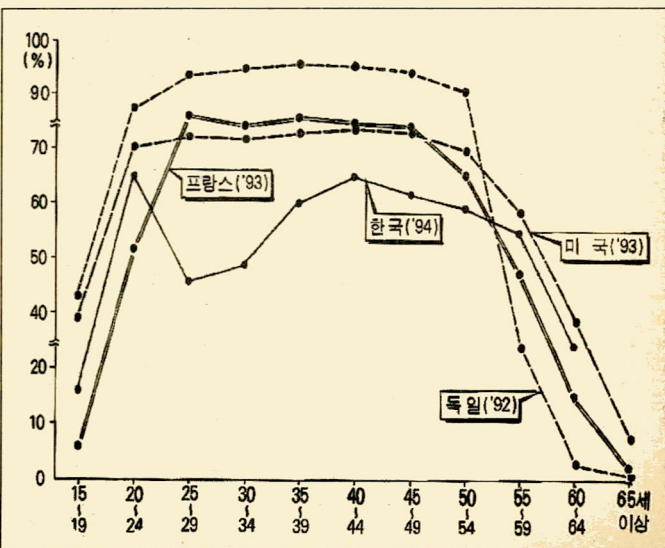
원점을 맴도는 결혼과 육아의 딜레마

이는 결혼과 육아가 기혼 여성의 직장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여성들은 결혼과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을 한동안 중단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단했던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이 시기의 여성들이 사회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겪는 문제들이 바로 이

시대 30대 여성의 공통된 고민으로 묶여진다.

30대 여성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자료: 통계청)

윗세대에 비해 다양한 양상을 드러낸다. 좀더 신세대적인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어머니세대와 비슷한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다.

조혜정 교수는 이런 면에서 30대를 다양성의 세대라고 규정한다. 30대 초반과 후반이 다르고 80년대 초반과 후반 학번이 다르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공지영식 홀로서기가 주창되는 가하면 가족 공동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성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한 김형경 식 〈세월〉이 공존한다. 30대는 LG전자 여성인재개발팀의 민금란 과장(32)처럼 “가장 안정적인 시기”로 평가될 수도 있고, 전업주부 황선희 씨(31, 전북 전주시)의 말대로 “기회를 노리는 과도기”가 될 수도 있다.

전통과 새로운 가치관 사이

그럼에도 ‘30대 여성은 곧 희망이다’는 주장은 사그라지지 않는다. 사회학자 김영희 교수(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 과정)는 최근 발간된 〈창작과 비평〉 가을호에 ‘근대체험과 여성’이라는 글을 실었다. 이 글에서 김 교수는 40대 이후의 세대를 대표하는 박완서와 30대를 대표하는 김인숙, 공선옥의 여성적 글쓰기를 비교하면서 30대 여성은 ‘여성의 삶에 대한 명쾌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정리했다.

‘박완서 세대’가 현실을 절망적으로 그려내는 데 반해 ‘김인숙, 공선옥의 30대 세대’는 주체로서의 자신을 지키고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투 의식’으로 충만해 있고 거기에 바탕한 넉넉함까지 나타낸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지론이다.

(황금희 기자)